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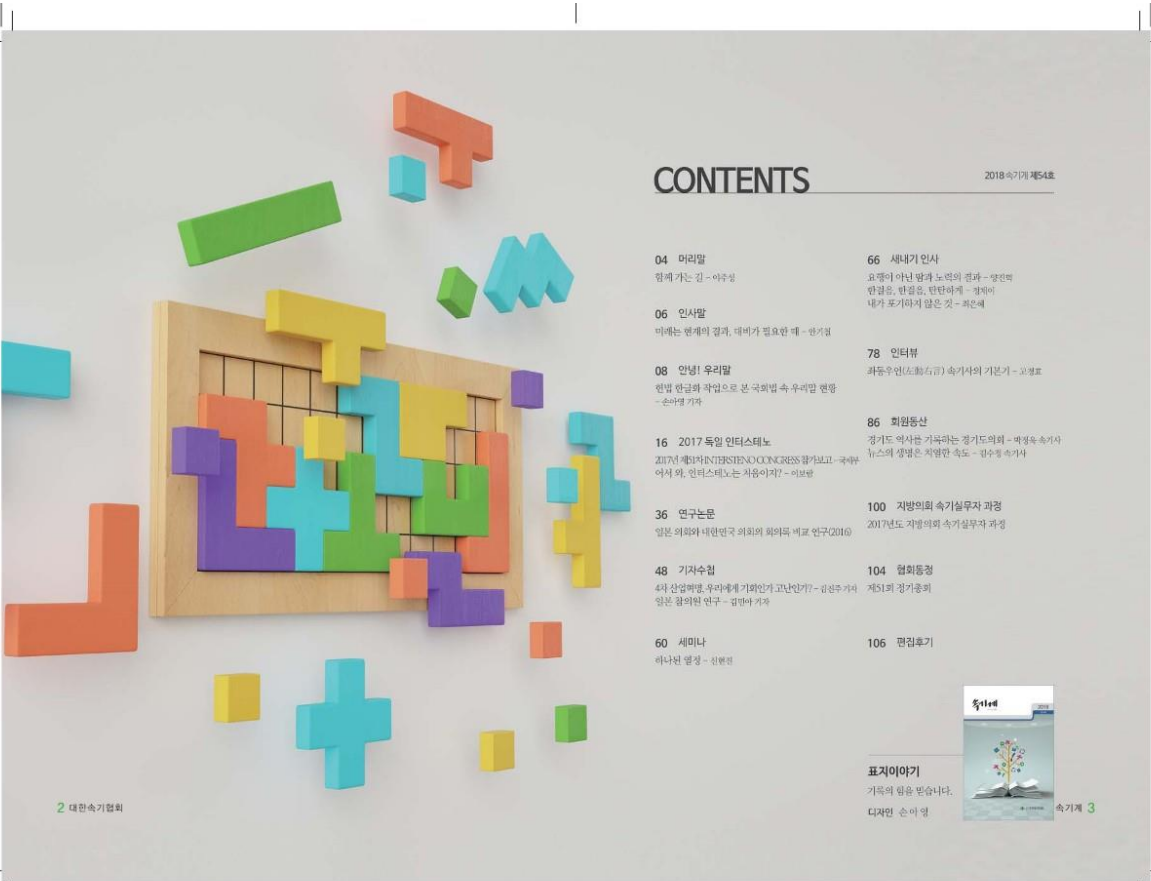
독서세계
SINCE 1970

2018

제54호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CONTENTS

2018 속기계 제54호

04 머리말 함께 가는 길 - 이주성	66 새내기 인사 요즘이 어딘 땅과 노력의 결과 - 양인택 꿈을 꿀 줄을 알면 허세 - 정재하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 - 복은재
06 인사말 미래는 현재의 결과, 대비가 필요한 때 - 안기성	78 인터뷰 최동우언(左動右言) 속기사의 기본기 - 고영표
08 연설! 우리말 원발 한글과 작업으로 본 국외법 속 우례말 현황 - 손아람 기자	86 회람동산 경기도 역사를 기록하는 경기도의회 - 박정옥 속기사 뉴스의 생명은 직렬한 속도 - 권수정 속기사
16 2017 독일 인터스테노 2017 제1차 INTERSTENO CONGRESS 참가보고 - 국외부 이서 화, 인터스테노는 처음이거냐 - 이보람	100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2017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36 연구논문 일본 의회사 대안연국 의회의 회의록 예보 연구(2016)	104 협회동경 제1회 정기총회
48 기자수첩 4차 산업혁명, 우리에게 기왕인가 고난인가? - 김원주 기자 일본 참의원 연구 - 김민아 기자	106 편집후기
60 세미나 비나선 별장 - 신봉민	



포지이아기
기독의 힘을 받습니다.
디자인 손아람

2 대한속기협회

속기계 3

머 리 말

함께 가는 길



속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1대 대한속기협회장을 맡게 된 이주성입니다.
오랜 시간 속기협회 여러분과 함께해 왔는데 이렇게
회장으로서 인사드리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대한속기협회는 1955년 대한속기학술협회로 설립되어 1966년 대한속기협
회로 재창립된 이래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속기문화 창달을 위해 부단히 노력
해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속기계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 최초로 속기 전
문학사 과정인 스마트속기과가 부천대에 신설되었고, 두 번째로 속기역사관이 개
관하였습니다.

전문학사 과정으로 시작한 스마트속기과는 이제 4년 학사 과정이 결정되었습니
다. 계약학과로 시작하여 여기까지 오는 데는 회원 여러분 모두의 성원의 힘이 컸
습니다.

속기학과 개설은 우리 속기계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속기학과 개설로 속기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직업윤리의식의 체계를 가진 학문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속기의 뼈대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속기역사관 개관은 우리의 시작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일을 대신하게 될 텐데 속기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의 목소
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속기인
들이 우리만의 역사를 가지고 단단한 뼈대가 있다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
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무선은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제 곧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함께 가야
길이 되고 함께 꾸는 꿈이 현실이 됩니다.

저는 이제 대한속기협회장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걷어 내고 희망의 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이주성

4 대한속기협회

속기계 5



미래는 현재의 결과, 대비가 필요한 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나라 안팎은 격동의 연속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 과도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급급한 때입니다. 이에 더하여 미세먼지까지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 속에서 화사한 봄꽃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협회는 연초 정기총회에서 의원 결직 제한의 강화에 따라 회장 개선이 있었습니다. 전임 회장님께서도 마음으로 계속 성원하셨다 하셨습니다. 신임 회장님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데 대하여 회원님들을 대신해 지면으로나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는 1955년 속기문화·학술의 진흥과 기록보국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속기 선각자 및 선배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협회는 지방의 회·법원·교육속기 등을 포괄하고 인터스테노 활동 등 의연 확장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른 정보기술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좀 더 내실 있는 대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회무로서 한국속기학회 창립 지원이 있습니다. 속기학과 개설에 이은 학회 창립은 자격 제도, 속기 급여, 속기 교육 과정 그리고 음성인식 등의 분야에 대해 협회가 필요로 하는 보다 학구적인 논의와 논거 제공을 통하여 속기 저변의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랬듯 오늘의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한마음으로 협회를 성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투영해 볼 수 있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속기인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사장 안 기 철

안녕! 우리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용성

안녕! 우리말

헌법 한글화 작업으로 본 국회법 속 우리말 현황

손아영 기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나요? 저는 뜻은 어렵듯이 알겠지만 꼭 집어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부속도서'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부속도서는 '부속(附屬): 주된 사물이나 기관에 달려서 붙음'과 '도서(島嶼): 크고 작은 온갖 섬'의 두 한자어를 결합한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 '달린 섬'으로 바꾸면 뜻이 명료해지지요, 서술어 '~로 한다' 역시 선포의 힘이 약하므로 '~이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이에 딸린 섬들이다.”

어떨까요? 이해하기 훨씬 쉽지요?

2018년 현재 우리나라는 개헌 논의로 뜨겁습니다. 다양한 개헌 요구사항이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헌법과 법령을 처음부터 한글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조문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나 용어, 일본식 표현들을 바른 우리말로 순화하는 작업을 촉구한 것이지요.

안녕! 우리말
한편 한글화 작업으로 본 국회법 속 우리말 현황

대체 우리 헌법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기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을까요? 이번 '안녕! 우리말'에서는 헌법과 나아가 국회법 조문에 숨어 있는 낱말과 문장의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I 현행 헌법의 한글 문법·표현·표기 오류 현황

최근 국립국어원은 136개의 헌법 조항 가운데 무려 111개 조항에서 문법·표현·표기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문의 80%에 오류가 있다는 말인데요, 심지어 맞춤법이 틀린 것도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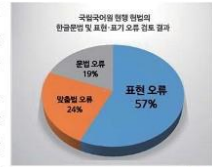
"대통령은 ~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2조입니다. 다들 눈치 채셨나요? 의미상 '붙일'이 아니라 '부칠'이 맞습니다.

"범불에 저속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 조문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범위 안에서'가 맞지요. 헌법 조문에는 명사가 이어지면 붙여 쓰는 경향이 있으나 맞춤법 규정에 따라 띄어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예로 '국회재적의원'이나 '행정각부' 역시 각각 '국회 재적의원'과 '행정 각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저런 표기상의 문제 말고도 표현이 좀 이상한 경우도 있습니다.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에서 '각인'은 '저마다'로 쓰면 될 것을 어렵게 쓴 표현입니다. 같은 사례로 '주류 → 주둔', '기방 → 속임수', '임면한다 →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부서한다 → 잊붙여 서명한다'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 또한 어색한 번역부 문장입니다. 그냥 '대통령 후보자'가 가독성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어학자들은 개인 때마다 헌법 개정 작업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했지만 1962년 제5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국어학자가 참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 속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제대로 지우지 못해서 청산해야 할 일본식 표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전문에 역행하는 것 같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II 국회법의 한글 문법·표현·표기 오류 현황

국회법에서는 우리말이 올바르게 쓰일까요? 국회법 중에서도 속기사라면 한 번쯤 봤을 제7장 회의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불필요한 대명사 '이'와 '그'

115-②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본회의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한다.

문장에서 '이'와 '그'가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문에서는 '이를'이 불필요합니다. '이를'은 '기록한다'의 목적어인데 '이'가 앞에 있는 '본회의의 의사'를 지시하므로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습니다.

2. 부정 표현의 남용

117-④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지 않고**

'아니다'는 '않다'의 본말이지만 현대 한국인이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표현은 사람들로 하여금 헌법과 거리감을 느끼게 하므로 조문의 '~지 아니하-' 대신 '~지 않-'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여야'도 '해야'로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버릇처럼 사용하는 이은말 '~에 의하다'

- 117-③ 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음 → **으로**
- 118-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에 따라, 해서**는 안 된다
- 118-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회의록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에 따라, 않은, 회의록 부분, 열람·복사 등, 안 된다**

'~에 의하다' 역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의미에 따라 '~으로'나 '~에 따라' 등으로 바꾸면 의미가 또렷해집니다. '아니한다'와 '아니다'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각각 '않은'과 '안 된다'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의록부분'과 '열람·복사등'은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으로 각각 '회의록 부분'과 '열람·복사 등'으로 써야 옳습니다.

안녕! 우리말 헌법 한글화 작업으로 본 국회법 속 우리말 현황

안녕! 우리말 헌법 한글화 작업으로 본 국회법 속 우리말 현황

4. 문장부호, '기타(其他)', '및'

117-② 회의에서 발언한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기타 발언자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그 밖에 발언자

이 조문은 고칠 부분이 무려 세 군데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기타(其他)

헌법에는 유독 '기타'가 많은데 이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기타'는 '그 밖에(의)'나 '이 밖에(의)'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문장부호

헌법의 조문에는 가운뎃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 부호는 앞뒤 이어진 말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는 효과가 반점(·)보다 덜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자리가 아니면 반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대체로 셋 이상의 요소가 나열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국무위원' 앞 가운뎃점을 반점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고 '그 밖에 발언자' 역시 엄연히 명사로서 나열한 요소이므로 그 앞에 문장부호 반점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및

위 조문은 한 곳에는 가운뎃점을 넣고 한 곳에는 '및'을 썼습니다. '및'은 시각적으로 '및' 뒤의 요소가 그 앞의 요소들과는 더 떨어져 보여 차별화된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및' 대신 반점을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II 마무리

세종대왕은 나라말이 중국말과 달라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않고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점을 딱하게 여겨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합니다.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500년 전에도 이런 인식이 존재했었는데 하물며 오늘날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언어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헌법을 구성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필수적인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번 제10차 개정헌법은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이 녹아 있는 헌법이 되기를 바라 봅니다.

참고문헌

리의도 외,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2018

헌법 한글화 작업으로 본 국회법 속 우리말 현황

2017년 제51차 INTERSTENO CONGRESS 참가보고

국 제 부



기 간: 2017년 7월 22일(토)~7월 28일(금)

장 소: 독일 베를린

한국대표단(총 13명)

- 단장: 한순덕(협회 회원, 국회)
- 대표: 손석권(협회 이사, 한국스테노)
 - 김점동(협회 이사)
 - 김한우(인터스테노 과학위원회 위원)
 - 강윤자(협회 회원, 제주도의회)
 - 김병수(협회 회원)
 - 문홍석(제주도의회)
 - 정 속(협회 회원, 국회)
- 경기대회 출전 선수:
 - 김봉철(한국스테노)

- 김소라(한국스테노)
- 김재일(한국스테노)
- 김천용(한국스테노)
- 이보람(협회 회원, 국회)

■ 참가국 및 참가인원: 26개국, 488명 참가

- 참가국 명단: 가봉, 네덜란드,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미국,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르헨티나,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중국, 체코, 카메룬, 캐나다, 터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 참가목적

- 각국의 기록문화와 속기의 국제적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 속기 발전방안 강구
- 우리나라 의회 속기시스템 홍보
- 각국 의회의 속기 및 회의록 관련 정보 교류 및 현안 논의
- 독일 의회의 속기시스템과 회의록 발간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교류
- 속기경기대회 참가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홍보

■ INTERSTENO 총회 등 행사 일정

일 자	장 소	일 정
7월 22일 (토)	Hollywood media hotel	참가자 등록
	Hollywood -pinewood	Council meeting 1 참석
7월 23일 (일)	Delphi Film Palast am Zoo	총회 개회식 및 환영만찬
	Hollywood	IPRS meeting 1 참석
7월 24일 (월)	Hollywood	전시회 참석
	Rackow	Real Time speech capturing competition 참가 및 체험
7월 25일 (화)	Hollywood -Kino Neue Lupe	Conferences - IPRS 참석
	독일 의회	독일 의회 방문 및 속기시스템 관련 보고 청취
7월 26일 (수)	Hollywood -pinewood	Council meeting 2 참석
	Hollywood -Bel Air restaurant	Council dinner 참석
7월 27일 (목)	Hollywood -Kino Neue Lupe	INTERSTENO 총회 참석
	Delphi Film Palast am Zoo	시상식
7월 28일 (금)	Haus Zenner	송별만찬
		Excursion 4 - Spreewald with Kahnfahrt

■ INTERSTENO 총회 행사 주요 내용

1. 개회식

독일 베를린 Delphi Film Palast am Zoo에서 개최된 총회는 오프닝 공연 후 우리 팀에서 준비해 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영상에 각국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시작되었다.

회장의 개회 선언 후 각국의 대표들이 자국 국기를 들고 인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한순덕 단장이 대표로 단상에 올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관심을 가져 줄 것과 INTERSTENO에 참가하게 된 소회를 밝히며 인사를 하였다.

2. Council meeting(중앙위원회)

결산과 예산 관련 회계보고 및 온라인대회의 수입과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각 본과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이 이루어졌다. 신입부회장에 Russel Page(미국), 심판위원장에 Georgette Sante(벨기에),



재정위원장에 Danny Devriendt(벨기에), 과학위원장에 Carlo Eugeni(이탈리아), 교육위원장에 Tang Keliang(중국)이 유임되었다.

다음 2018년 INTERSTENO Council & IPRS 개최지는 터키의 이스탄불로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표결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2019년 제52차 INTERSTENO 총회 개최지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로 결정되었다.

또한 경기대회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적발 시 벌점 부과 여부, INTERSTENO 로고 사용, 속기의 유네스코 등록 관련 논의가 있었다.

3. General Assembly(총회)



Council meeting에서 사전 논의된 안건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재정위원장인 Danny Devriendt로부터 INTERSTENO 지난해 결산과 내년 예산에 대한 회계보고가 있었다.

정관 개정 사항으로는 INTERSTENO 수입 내역에 온라인대회 비용 및 의회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추가하고, 이사회와 심판위원의 제안은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반대 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부될 수 있으며, 상임위원의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INTERSTENO의 활동을 개선하고 정관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정관 개정이 투표를 통해 의결되었다.

또한 2018년도 INTERSTENO Council & IPRS 개최지는 터키의 이스탄불로,

2019년 제52차 INTERSTENO 총회 개최지는 이탈리아 사르데냐로 결정되었다.

보드 멤버의 임기 만료 등으로 신입 보드 멤버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번 총회 투표에 의해 결정된 보드 멤버는 다음과 같다.

- 회 장: Rian Schwarz-van Poppoel(네덜란드)
- 부 회 장: Russel page(미국)
- 사무총장: Danny Devriendt(벨기에)
- 멤버: Emrah Kuyumcu(터키)
- 멤버: Krystian Wawrzynek(체코)

4. IPRS meeting(7월 23일)



IPRS 코디네이터 Rian 사회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고 각 주제 발표 후에 질의와 답변이 진지하게 이어졌다.

▲ 주제 발표

- Roberto La Rocca(네덜란드): Quality qualified
- Ingeborg Mulders(네덜란드): Quality in parliamentary reporting in the Netherlands

- Fabrizio Verruso and Dario Savalli(이탈리아): Quality in reporting in Italy
- Minori Arai(캐나다): Quality of real-time reporting at the Senate of Canada
- Wouter Zwijnenburg(네덜란드): Language authority in the Dutch Parliament
- Carlo Eugeni(이탈리아): Introduction to ASR
- Paolo Paravento(Pervoice): Presentation about ASR products
- Henk-Jan Eras(네덜란드): Speech-to-Report
- Rian Schwarz-van Poppel(네덜란드): Pros and cons of automatic voice recognition in reporting

5. Conferences(7월 25일)

Conferences는 2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으며 4개의 세션(Quality by Education, Quality in Research on Shorthand, Quality in Human-machine Interaction, Quality in the Profession)으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1) Quality by Education

- ① Hans Treschwig(독일): Different degrees of the sufficient handwriting quality between longhand and stenography
- ② Tsuguo Kaneko(일본): The effect of German Cursive School in

- ② Eero Voutilainen(핀란드): Quality of Verbatim Reports in Finland
- ③ Owain Wikins(영국): Reporting languages other than English—the case of reporting Welsh at the House of Commons
- ④ Tatsuya Kawahara(일본): What makes a quality transcript in Parliamentary reporting

6. 독일 의회 방문

독일 의회는 하원(Bundestag)과 상원(Bundesrat)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며 임기 4년의 하원은 598석으로 직접선거와 정당비례대표제의 혼합 형태로 선출된다. 연방상원은 주 총리, 주 장관, 시장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주 정부에서 선출한다. 현재 베를린에 있는 독일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으나 1999년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으며 건물 천장은 태양열에너지기 위해 유리들로 지어졌다.

먼저 독일 하원을 방문한 참가자들은 독일 하원의 속기시스템과 의사록에 대한 Barbel Heising(의회속기사업자 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던 후 각국 회원들 간 비팅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어 의회 관람을 하였다.

- Stenography to Japanese, Chinese and Korean Stenography
- ③ Stefan Löffler(독일): Steno 3.0:stenography & the information age

2) Quality in Research on Shorthand

- ① Akihito Hirano(일본): A new Cursive Bilingual Stenography system for English and Japanese for personal use 'EPSEMS'
- ② Daniele Metilli-Giulia Accetta(이탈리아): The Odyssey Shorthand —about deciphering less widespread systems
- ③ Jorge Bravo, Azat Ambartsoumian & Diana Campi(아르헨티나): The shorthand for music & dance—written words remains

3) Quality in Human-machine Interaction

- ① Arjan van Hessen(네덜란드): Investigation in the field of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 ② Wim Gerbechs(네덜란드): Quality with Velotype (human & machine)
- ③ Fabio Angeloni & Paolo A. Michela-Zucco(이탈리아): The Michela stenotype system as a useful support to disabled people

4) Quality in the Profession

- ① John Vice(영국): Quality in the profession of reporting props in the UK

<독일 하원 Shorthand Writer's Service의 업무 및 의사록 작성시스템>

1. 독일 하원 속기 부서의 업무

모든 본회의의 속기록 작성과 위원회 및 기타 기구의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회 속기사를 양성한다.

2. 본회의의 속기

독일 하원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의하여 본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작성되어야 하며 신속한 계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의사록이 완성된다.

- 1) 총 16명의 속기사가 5분 동안 하원 회의를 기록한다.
- 2) 디지털 오디오 녹음을 이용하여 약 60분 이내에 보초타이프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에서 회의록의 초안을 작성한다.
- 3) 이때 연설의 스타일이나 내용의 변경 없이 명백한 발음 실수나 문법적 실수 또는 구어체와 문어체 사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만 수정한다.
- 4) 속기사들은 80분 후에 다음 회의 속기를 위해 회의실로 돌아간다.
- 5) 8명의 편집담당자 중 1명이 완성성, 언어적인 정확성, 일관성을 고려하여 30분 정도 초안을 검토한다.
- 6) 검토된 초안은 발언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원에게 보낸다.
- 7) 같은 날 2명의 최종 편집 담당자가 의사록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인쇄된 형태로 다음 날 인터넷에 게재된다.

3. 의사록의 수정

독일 하원 절차에 관한 규칙 제117조에 따라 모든 발언자는 의사록을 검토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발언자가 수정을 원한다면 발언이 끝난 후 약 2시간 후에 발언의 초안 기록을 보낸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의 의미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발언자가 최대 2시간 안에 변경하지 않으면 의사록은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의원은 의사록의 어떠한 내용도 수정할 권한은 없다.

4. 하원의 위원회 및 기타 기구의 회의 의사록

- 1) 위원회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회의, 중요한 법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 다른 기관이 개최한 회의 및 청문회의 의사록을 작성한다.
- 2) 위원회 및 기타 기구의 의사록의 절차는 본회의 의사록의 절차와 다르다. 속기사는 최대 2시간 이내로 속기하며 특수한 경우 발언자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속기사 양성 과정

독일 의회 Shorthand Writer's Service에는 속기사 양성을 위한 부서가 있으며 신규 속기사 채용과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육을 담당한다. 훈련 기간 동안 신입 속기사는 숙련된 선배 속기사와 함께 실제 회의에 참여하며 의사록 작성 방법과 의회 속기 연습 그리고 의회에 관한 특별한 지식 등을 배운다. 신입 속기사는 문학 관련 석사학위와 숙련된 속기 실력 모두 요구되며 어느 정도의 속기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트레이닝 코스에 참여할 수 있다.

7. 속기경기대회(7월 23일~7월 24일)



INTERSTENO 속기경기대회는 총 7개 종목으로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Real time speech capturing 종목에 김봉철, 김소라, 김재일, 김천용, 이보람, 이상 5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이틀은 한국에서 예선전과 최종 전국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선발된 만큼 우리나라 최고의 속기 실력을 갖춘 선수들로 최선을 다해 대회에 임하였으며, 경기 결과 김봉철 회원이 2위에, 김천용 회원이 4위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8. 시상식 및 송별만찬

각 종목별로 33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Real time speech capturing 대회에서는 중국의 장 속기사가 1위, 한국의 김봉철 속기사가 2위, 이탈리아의 Danilo menghi 속기사가 3위, 김천용 속기사가 4위에 올랐다.



▲ 각 국가별 메달 수상 인원(총 91명)

체코(33), 이탈리아(12), 중국(14), 터키(11), 독일(11), 미국(5), 헝가리(2), 한국(1), 벨기에(1) 네덜란드(1)

시상식 종료 후 송별만찬과 파티를 하며 각국의 회원들은 서로 축하하고 기념품을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그간의 긴장을 풀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자리를 가졌다.

9. 성과

-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나라 속기 현황과 의회속기 및 기록문화를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 Real time speech capturing 종목에서 2위와 4위를 수상함으로써 한국 속기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 IPRS 미팅과 컨퍼런스 참여를 통해 각국의 속기와 기록문화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영상 상영과 기념품 전달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 현재 INTERSTENO에서 김한우 과학위원회 위원과 손석연 교육위원회 위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이동욱 부천대 스마트속기과 학과장이 감사로 선임되어 우리나라가 INTERSTENO에서 입지를 더욱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0. 건의사항

- 각국의 주제 발표를 들으며 한국의 속기 및 기록 시스템이 여러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런 우수성을 주제 발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적극 알리고 또 우리의 속기 및 기록 시스템에 대한 각국 대표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INTERSTENO에 참가할 대표단을 지금의 선정 시기보다 앞당겨 선정함으로써 주제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INTERSTENO 총회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INTERSTENO는 7개 종목의 속기경기대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참가 선수들은 여러 종목에 동시에 출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여러 단계의 선발 과정을 통해 실력 있는 선수들이 출전해 온 만큼 우리 언어에 맞는 종목을 찾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속기계의 위상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록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7개 종목 중 적합한 종목을 사전조사를 통해 미리 선정하고 선수 선발의 시기를 앞당겨 선수들이 대회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서 와, 인터스테노는 처음이지?

이 보 략

<안녕, 베를린>

우연한 기회에 인터스테노 최종 참가자로 선발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 특히 속기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너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속기에 관련된 영어 공부도 시작했고 외국의 속기와 관련해 물어볼 질문 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인천에서 모스크바까지 9시간 40분,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2시간 50분. 기나긴 비행 끝에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20대 청년일 때 유럽여행을 하면서 베를린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베를린은 여유롭고 전통과 첨단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습니 다. 꽤 괜찮은 도시였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베를린은 저에게 그리 다정하지 못했습니다. 착륙할 당시에 비행기가 유독 크게 흔들리고 충돌도 있었다 싶었는데 이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심하게 멀미를 했고 결국 컨디션은 엉망이었습니다. 더구나 처음 이동한 곳이 무려 학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학생(독일식 죽밥)은 몇 년의 한이 서린 음식이었습니다. 유럽여행 당시에는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혼자 하는 여행이라 학생을 먹어 보지 못해서 그제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너무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테노에 참가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번에는 꼭 학

생을 먹어 보리'였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학생을 만나고도 제대로 먹어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에 태어나 처음 겪는 시작적응 실패로 해가 쯤썩한 오후 4시에 도(한국시간 22시) 저는 비몽사몽,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베를린, 너 참 많이 변했구나.

시차로 인한 피로는 그 이후로도 2~3일간 지속되었지만 일정은 제 시작적응을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일정 첫날, 참가자 등록을 하고 곧바로 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과장을 있는 힘껏 보태 아카데미 시상식장을 되어 보이는 대강당의 스크린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동영상 상영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을 때는 마치 올림픽준비위원회의 일원이라도 된 듯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참가국이 소개되고 각국의 단장들이 국기를 들고 입장할 때는 정말이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특히나 대한민국이 소개되고 한순간 단장님께서 등장하실 때는 금메달을 따지는 않았지만 '엄마, 나 금메달 땀'이라는 멘트가 절로 생각날 만큼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환영 다과회는 비가 오는 곳은 날씨였지만 미드나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만 보던 스탠딩 파티 같은 분위기라 그 자체로 너무 신이 났습니다. 괜히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한 손에 들고 분위기를 잡으며 '이게 베를린이구나' 새삼 다시 한번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꿈, 그 한가운데에서>

인터스테노 일정 3일 차, 드디어 실시간 속기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막상 대회장에 도착하고 엄숙한 분위기와 맞닥뜨리니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긴장보다는 그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마냥 신기하고 벅했습니다. 결과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고 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입사 실기시험 이후에 오랜만에 속기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고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여서 입사 준비를 하던 그 시절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제 꿈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또 다른 꿈의 자리 한가운데에 있었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과 만감이 교차하던 차에 대회가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대회는 끝났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2017 인터스테노 베를린, 그 안에 제가 함께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저에게 꿈만 같으니가요.

<어서 와, 독일 의회는 처음이지?>



독일 의회 방문은 이번 인터스테노 일정 중 제가 가장 고대했던 일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다 보니 다른 나라의 의회가 궁금하기도 했고 속기 업무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독일 의회의 건물은 전체적으로 고전적인 양식에 유리 돔 등의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한 건물로 웅장하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한눈에 보기에도 유구한 역사가 느껴지는 오래된 벽들이 있는데 그 벽을 따라가다 보면 신속원 현대식 건물과 만나게 되어 고전과 현대의 묘한 콜라보를 직접 볼 수 있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독일 의회 속기양성 책임자의 설명을 통해 독일 의회의 회의록 작성 방법 등을 알 수 있었는데 큰 틀에서는 우리의 회의록 발간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보조 타이피스트가 있다는 점은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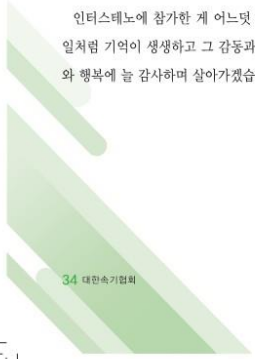
이후에는 각국에서 온 다른 나라의 속기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본회의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반면 우리는 위원회 중심주의에 가까워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회의록 발간 과정, 속기사들의 업무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인터스테노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안녕, 베를린>

드디어 인터스테노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과 송별만찬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주 어린 꼬마아이가 다관왕에 올라 몇 번씩 가장 높은 단상에 오르는 것도 흥미로웠고,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수상을 하는 것도 즐거웠지만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갔던 건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한 리얼타임 부분이었습니다.

마침내 2위에 우리나라의 김봉철 선수가 호명되면서 한국 대표단 사이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회 당일 본인 키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여분으로 준비한 손에 익지 않은 새 기계로 참가했는데도 세계 2위라니, 정말이지 같은 선수단으로서 자랑스럽고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좋은 성과를 얻은 탓에 송별만찬에서도 대표단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비록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함께한 여정이 즐거웠고 좋은 결과까지 얻었으니 다들 신나게 춤추고 노래도 부르며 베를린에서의 마지막을 즐겼습니다.

인터스테노에 참가한 게 어느덧 8개월 전의 일이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어제의 일처럼 기억이 생생하고 그 감동과 행복이 여전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행복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일본 의회와 대한민국 의회의 회의록 비교 연구

회의기록발전연구모임

※ 본 논문은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현 일본 의회의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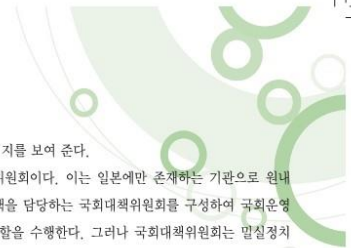
1. 일본의 의회제도

일본국회는 하원인 중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의 양원제로 운영되는데 의원자율권에 따라 각 의원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 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을 비롯하여 법률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양원의 의결이 다를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우선한다.

일본국회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해 국회 해산이 잦다는 문제이다.¹⁾ 해산이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국회 해산은 국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특히나 일본에서 국회 해산의 문제점으로는 해산이 빈번하고 해산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그리고 현실에서는 본래의 취지보다는 정략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국회의원직 세습 현상을 들 수 있다. 중의원의 세습의원 비율은 20~30%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근대적

1) 일본국헌법 제36제3호에서 헌왕의 명하여 중의원 해산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 해산은 중의원에만 해당된다.



의미의 의회와 상반되는 이미지를 보여 준다.

세 번째 특징은 국회대책위원회이다. 이는 일본에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원내 의석을 갖는 정당이 국회대책을 담당하는 국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운영과 의사일정의 틀을 짜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회대책위원회는 말실정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 기능을 박탈하고 국회를 행태화하기도 한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불신을 자아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중의원·참의원 기록부 현황

일본은 1890년 제1회 제헌국회부터 수필속기를 이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했다. 이를 위해 중의원과 참의원은 각각 속기사 양성소를 설치하여 속기사를 양성했다. 그러나 점차 속기사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국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의사록 작성의 효율화가 결정되면서 2005년부터 양원 모두 속기사 신규모집은 정지되었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현재 음성인식시스템과 회의록작성시스템을 채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자연감소되는 속기사를 대신하여 사무계 직원의 연수를 거쳐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는 회의에서는 여전히 수필속기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회의록의 검토 등 전문성을 요하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는 기존의 속기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의정기록과 유사한 조직을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이다. 따라서 일본이 왜 음성인식시스템이나 회의록작성시스템을 채용하게 되었는가, 현재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기록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작업이다.

1) 중의원 기록부

① 구성 및 사무분장

중의원 기록부는 기록부장 아래에 4개 과 및 회의록데이터관리실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1과는 본회의, 총무위원회, 의원운영위원회, 징벌위원회, 3개의 특별위원회, 헌법위원회, 정치윤리심사회, 양원협의회, 연수 및 속기 연구의 업무를 담당한다.

2과는 내각위원회, 법무위원회, 외무위원회, 예산위원회, 결산행정감사위원회, 3개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3과는 재무금융위원회, 문부과학위원회, 후생노동위원회, 국가기본정책위원회를 담당한다.

4과는 농림수산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위원회, 안전보장위원회, 3개의 특별위원회를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회의록데이터관리실은 회의록 데이터화 및 데이터의 관리운영, 속기에 필요한 녹음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중의원 기록부의 인적 구성을 살펴본다.

기록부장 이하 총무주관을 비롯하여 4명의 과장과 회의록데이터관리실장이 있다. 201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서무 4인, 원고작성자 74인, 전문반 10인, 편집 5인, 교열 38인, 조사 5인, 운영 3인이며 회의록데이터관리실에 실원 7인, 보정반 6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159인의 규모이다.



제가 주어진다.

- 수필속기를 사용하지 않고 원고를 작성할 것.
- 가까운 장래에 수필속기를 모르는 사람이 종전과 동등한 수준의 질을 유지하는 회의록을 작성할 것.
- 종전의 회의록 작성속도를 유지 또는 향상시켜서 회의록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저하시키지 않을 것.
- 회의록 작성에 관계되는 인원을 삭감할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의원 회의록 작성방법 등에 관한 검토 프로젝트팀, 워킹그룹이 설치되어 1년간 국내외의 회의록 작성현황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동향 등을 조사하고 새로운 회의록 작성방법에 대한 검토를 거듭한 결과, 중의원은 음성인식기술을 채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특정화자 인식률은 60~70% 정도이므로 이것으로는 목표로 하는 작업효율 향상을 바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도쿄대학에 대한 조사에서 중의원의 심의음성으로 구축한 코파스²⁾에서 모델을 작성하여 80% 정도의 인식결과 산출 가능성이 있음이 판명되었다. 또한 코파스의 크기를 일정량 늘리면 인식률의 향상도 상정할 수 있고 컴퓨터의 처리속도가 더욱 빨라지면 음성인식은 충분히 실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음성인식을 이용한 새로운 회의록 작성시스템의 도입 추진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6년 현재 음성인식시스템의 정확도는 평균 90%이다.

2) 음성과 그 음성을 충실히 기록한 텍스트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음향모형, 언어모델 등의 자정에 이용된다. 그 후제 도쿄대학의 연구에 의해 충실한 기록 없이 모델을 작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② 기록부의 소관 사무

다음으로는 각각의 사무 내용을 보고자 한다.

기록부장 이하 실·과장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은 임장과 원고작성자의 시간스케줄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원고작성자는 음성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존에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던 속기사를 비롯하여 2년간의 연수를 거친 사무계 직원까지 포함된다.

원고작성 업무 경험이 20년 이상이 되면 전문반을 담당하게 되는데 전문반은 원고작성자를 지원하며 의원운영위원회의 원고를 작성한다.

전문반을 거쳐 교열이 되면 원고작성자가 만든 원고를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세 번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한두 위원회당 2~3명의 교열이 담당하는데 시간 단축을 위해 복수제로 운영한다. 또한 두서와 말미를 합쳐서 인쇄 작업을 하기도 한다.

조사는 음성이 선명하지 않을 때 청취를 지원하고 발언자에게 문의를 하기도 한다.

편집은 두서와 말미의 접수 창구를 담당하고 있다.

회의록데이터관리실의 실원은 회의록 데이터 관리에 관한 제 업무를 담당하고 보정반은 회의록 데이터의 보정을 담당한다.

③ 음성인식시스템

2004년 10월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차년도 이후의 중의원 속기 사 양성소 학생모집 중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정보기술을 이용한 회의록 작성시스템의 조사와 개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스템 개발에 즈음하여 다음의 과



④ 음성인식시스템하의 업무 흐름

- 운영: 회의 전날까지 제3과의 운영 담당자가 임장자(30분 교대), 원고작성자(5분 교대)로 시간 스케줄을 작성한다. 이때 임장자는 회의장에 참석하여 사회교대, 의석발언, 의원의 동작 등을 체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음성인식: 회의가 시작되면 회의장 마이크를 통해서 전송선으로 인식된 음성·영상 데이터가 기록부 전용 음성인식 서버를 거쳐서 텍스트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텍스트와 음성·영상은 미리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 5분 단위로 각 원고작성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배분된다.(하나의 컴퓨터 화면에 상단에는 동영상, 하단에는 텍스트 표출)
- 원고작성: 원고작성자가 녹음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텍스트를 수정한다. 이때 일반적인 텍스트 에디터 기능에 더하여 음성의 재생·정지 조작이나 회의용어 입력 등 회의록 작성업무를 보조하는 텍스트 에디터인 '빠른손'을 사용한다.
- 필요사항 조사: 2과의 조사 담당자가 청취가 어려운 부분의 청취를 지원하거나 발언자에게 문의한다. 이후에 영상과 영상을 조회하고 임장자의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 교열: 교열자는 초고를 3회 읽고 체크한다. 첫 번째는 녹음을 들으면서 체크하고 두 번째는 정독하여 내용을 체크하고 세 번째는 체계를 포함하여 최종 체크를 한다.
- 인쇄·배부

2) 참의원

① 구성 및 사무분장

참의원 기록부는 기록부장 아래에 기록기획과, 1·2·3과로 이루어져 있다. 기록기획과의 사무는 부내 전반의 총무적 업무, 회의록 편집·보존, 회의록 작성지원(운영, 조사 등), 회의록데이터 작성·관리, 회의록속성시스템의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속기제1과에서 제3과까지는 각각 회의록 원고작성 및 교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의원 기록부의 정원은 160명으로 소관 사무별 내역은 비공개여서 그 자세한 내역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소관 사무별 담당을 정하는 규칙은 달리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무에 따라서는 타 부서에서 이동 후 또는 신규채용 후 바로 담당하는 사무도 있다고 한다. 단 교열에 대해서는 원고 작성을 25년 정도 경험한 뒤에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② 회의록속성시스템

참의원에서는 실제 회의의 영상과 음성용 속기사의 컴퓨터로 차례로 보내고 속기사는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영상과 음성의 속도를 변화시키며 시청하여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것을 회의록속성시스템이라고 부른다. 회의록속성시스템은 2008년 1월부터 개시되었다. 이러한 회의록속성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열린 국회'라는 기본 방침 아래 회의록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모든 회의록 데이터(미정고판)를 다음 날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의원도 중의원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속기사를 신규채용하지 않고 사무계 직

원을 대상으로 원고작성 연수 등을 실시하여 육성하고 있다.

③ 회의록속성시스템하의 업무 흐름

- 회의 예정을 시스템에 등록
- 영상·음성을 녹화·분할·송신
- 자기 자리에서 원고 작성: 속기를 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2인 1조로 운영한다. 그러나 속기를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회의록속성시스템의 영상·음성만을 사용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1인이 원고를 작성한다. 회의록속성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회의장에 1인용둔다.
- 1차 교열(미정고판 회의록데이터 작성·공개): 원고작성자가 제출한 5분간의 원고를 음성 대조 및 점검하여 수정하고 교정교호를 부여하는 업무이다.
- 최종 교열: 1차 교열을 마친 원고를 문리, 문맥의 파악에 중점을 두어 개의 부터 산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업무이다.
- 편집: 의사 부분 이외에 회의록에 기재 또는 게재하는 것의 편집에 관한 사무 및 회의록의 보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의사 부분 이외에 회의록에 기재 또는 게재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회의명, 참석자, 안건명, 부속안건(법률안, 조약, 청원 등)
 -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파견위원의 문서보고, 채택과 결정할 청원의 일람표, 질의자 배부자료 등)
 - 정정(회의록 발행 후에 발언자가 정정 요구한 경우의 조치)
 - 정오(회의록에 오자, 탈자 등이 있을 경우의 조치)
- 인쇄국 송고(책자회의록과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작성·공개)

3. 일본 의회와 한국 의회 비교

1) 인적 구성 및 시스템

(2016년 8월 기준)

조직	대한민국 국회		일본 중의원		일본 참의원	
	의사국 의정기구과 (2개 과)		기록부(5개 과)		기록부(4개 과)	
인적 구성	심의관	1명	기록부장	1명	비공개	
	과장	2명	총무주관	1명		
	서기관·사무관	16명	과장	5명		
	서무	2명	서무	4명		
	편집	17명	원고작성자	74명		
	이미지 및 정보	6명	전문번	10명		
	속기실무	65명	편집	5명		
	전자회의록	3명	교열	38명		
		조사	5명			
		심원	7명			
		보장반	6명			
		운영	3명			
총원	112명	총원	159명	총원	160명	
기록방법	컴퓨터속기 1995년 개시	음성인식시스템 2011년 4월 개시	회의록속성시스템 2008년 1월 개시			
상임위/특위	16개/11개		18개/10개		17개/8개(3개 조사회 별도)	
회의장 수	본회의장	1개	본회의장	1개	위원회 15개	
	제2회의장	1개				
	제3회의장	1개	위원회	13개		
	위원회	34개				
총계	37개	총계	15개	총계	14개	

2) 회의 시간

(2015년 기준)

회의 종류	대한민국 국회		일본 중의원		일본 참의원	
	총차수	실회의시간	총차수	실회의시간	총차수	실회의시간
본회의	50	115시간 18분	48	50시간 33분	45	59시간 30분
상임위	353	878시간 23분	328	826시간	310	677시간 44분
예결위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4시간 01분	35 (예산위원회, 결산특별위원회)	217시간 55분	35 (예산위원회, 결산특별위원회)	159시간 44분
특별위	131	279시간 04분	84	222시간 17분	74	188시간 42분
소위	402	1217시간 08분	10	1시간 49분		
기타 회의	국정감사	999시간 04분	심사회	12시간 16분	심사회	15시간 14분
	국정조사	1시간 33분			조사회	40시간 39분
합계		3614시간 31분		1330시간 50분		1141시간 33분

4. 제언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회의록 작성 수단을 변화시켜 왔다. 특히 한국 국회가 종전의 수필속기를 대체하기 위해 민간에서 개발하여 인력풀이 풍부했던 컴퓨터속기를 받아들여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속기방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데 반해 일본 중의원은 수필속기 인력의 고갈로 인하여 속기방법에 의한 회의록 작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의원이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결과 음성인식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여기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수필속기에서 컴퓨터속기로의 전환이 IT의 발달과 맞물려 회의록의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였지만 일본의 음성인식시스템은 회의록 작성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는 중의원에서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과 도입한 후의 원고 작성 시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진보적이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각각의 고유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볼 때 1)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임위 및 특위 수는 대동소이하다. 다만 회의장의 수가 일본에 비해 우리가 2배 이상으로 회의가 보다 활성화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는데 2)의 표에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 실회의 시간이 2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의 표에서 보면 총원에서는 우리가 일본에 비해 50명 정도 적다. 속기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의정기록과는 65명, 중의원 기록부는 74명으로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편집 및 전자회의록 파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편집 파트를 살펴보면 중의원 기록부는 편집 업무가 보다 세분화되어 있다. 편집, 교열, 조사 업무로 나뉘져 있으며 각각 5명, 38명, 5명으로 총 48명이 편집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참고로 의정기록과는 17명이 편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자회의록 파트를 살펴보면 의정기록과는 3명이 현원임에 비해 기록부의 회의록데이터관리실은 실원 7명, 보정반 6명으로 13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업무 효율화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구조하에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선결 조건은 인력의 확충이다.



4차 산업혁명, 우리에게 기회인가 고난인가?

김진주 기자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언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라지거나 혹은 각광받을 직업들을 예측하고 우리 사회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논쟁하기 바쁘다. 정부 또한 각 부처별로 이러한 세계적인 시류와 추세를 뒤치지 않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계획을 짜고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우리 속기계는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이 과연 속기계를 비켜 갈 것인지 아니면 잠식하고 말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상생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속기계에 가장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은 다름 아닌 음성인식 기술일 것이다. 이 음성인식 기술은 현재 다방면으로 상용화되어 있고 갈수록 그 기술 수준도 진보하고 있어 인식의 정확성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에서 속기계에는 어떻게 음성인식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되고 있을까? 그 예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들여다보았다.

국회 회의 시간의 증가로 인해 속기 실무, 편집, 그리고 전자회의록 파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업무 분장의 재조정이다. 즉 중의원 기록부와 같이 편집 파트를 세분화하는 것이다. 현재 기록부에서 편집은 게재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고, 교열은 본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는 의원실에 확인할 사항을 취합하여 담당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더구나 회의록의 보정을 교열이나 편집이 아닌 회의록데이터관리실의 보정반이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의정기록과에 적용시킨다면 실무 담당자가 원고 작성 시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덜어 줄 수 있으며 편집 담당자의 보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大山・子(2003), 國會學入門, 東京: 三省堂
- 新藤宗幸・阿部齊(2016), 現代日本政治入門,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히라노 히로시・고노 마사루(2004), 일본 정치의 이해, 서울: 푸른미디어
- 국회사무처 국제국(2006), 일본 의회, 서울: 국회사무처 국제국
- 김현우(2008), 일본국회론, 경기: 한국학술정보
- 이인섭(2001), 일본의 의원입법, 국회보, 414, 130-135
- 하세현(2005), 일본국회의 의원입법, 국회도서관보, 317, 22-28
- 중앙연구원
참의원규칙

우선 일본의 경우를 보면 2011년 4월부터 중의원에서는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속기사가 아닌 기술의 힘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고 참의원에서도 2008년부터 회의장에서 속기해 오던 방식에서 자기 자리의 컴퓨터로 음성과 영상을 재생하여 문자를 입력하는 체계로 바꾸며 변문 시간을 크게 단축해 속기에 필요한 인력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음성인식 기술을 회의 현장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1월에 국회에서 AI를 통해 자료들의 답변 초록을 작성할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검증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과거 5년분의 국회 회의록을 AI에 학습시킨 뒤 정책 과제나 논점을 정리시킬 예정이고 시험 운영에 성공하면 각급 행정기관 업무에도 AI를 보급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중국의 경우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사법 시스템 개선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이 등 중국의 여러 법정에서는 음성인식 기술로써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그대로 기록되며 그 기록된 내용은 법정에 설치된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송출되어 당사자와 법정에는 방청객은 물론 법정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음성인식 기술이 아직 100% 완벽하지 않은 만큼 속기사가 현장에서 오류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틀린 부분을 수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속기계는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아직 음성인식 기술이 회의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



은 것도 아니거니와 또 본 기자가 현직 속기사들에게 음성인식이 속기계의 미래에 끼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을 때 대다수가 음성인식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음성인식의 주목적이 회의용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장 상황에 이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전 세계적으로 사용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회의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더더욱—그 정확성은 현저히 떨어지며, 이로 인해 오히려 회의록을 작성하는 데 번문 등의 이중 작업을 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므로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 가까운 시일에 음성인식 기술로 속기가 대체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실제 국회 의정기록과에서 2016년 10월에 실시한 음성인식 기술 시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적인 음성 인식률은 약 50~80%대 초반으로 녹음 품질의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속기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최소 90% 이상의 요구 수준을 만족할 수 없었고 비교적 상황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본회의 발언에서조차 80%대 초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 회의 내용적 측면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이 두 나라만 비교해 보면—장내 소란, 의석 발언 등 모든 회의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기록하려는 우리나라 국회 회의록과는 달리 일본의 회의록은 대체적으로 회의의 흐름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록하고 또 우리나라에 비해 장내 소란 상황 등이 거의 없으며, 발언 방식도 위원장의 발언 허가에 따라 1인씩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동시 화자, 의석 발언 등의 발생 빈도가 적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음성인식 기술이 적용되는 데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상황변수

한 발언, 의석 발언, 장내 소란, 각종 회의 상황 표기 등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질 수 있는 우수하고 숙련된 전문 교열자의 육성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전에는 양면이 있고 또 어딜 가나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다. 소위원회, 국정감사·조사, 비공개 회의 등 음성인식 기술이 파고들 수 없는 여건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우리의 필요 이유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곳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뜻이다. 패배감과 타성에 젖어 있기보다는 음성인식 기술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속기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논리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될 때다. 4차 산업혁명이 기회로 다가올 수도 또는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이 기로에서 당신은 어디로 걸어 나갈 것인가?

출 처

- 연합뉴스, 日 국회, 음성인식시스템이 속기사 대체
- 연합뉴스, 日 국회속기사 인공지능으로 대체 추진…… 행정기관에도 보급
- 법률신문, 법원·검찰, '스마트 사법시대' 준비 착수
- 의정기록과 출장보고서(2016. 10. 5.), 의정기록과 음성인식 현황 보고서

가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삼국 속기계의 현실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는가? 지금 당장은 음성인식 기술의 영향력을 속기계 내에서는 체감하기 어렵고 또 기술이 완벽하게 구현될 날이 아득히 멀어 보여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가?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음성인식 기술의 시대는 도래하였고 앞서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기술이 낱알이 전보될 것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으로 보건대 명약관화이다.

그러나 아직 좌절하기는 이르다. 종종 오래된 기술의 진보에서 혁신이 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우리 함께 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을 즐길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자.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음성인식의 가장 큰 장점인 신속성을 활용하는 방안인데, 현재의 선 속기 후 번문인 이중 시스템에서 속기와 번문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시간 시스템으로 작업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의록 작성에 관계되는 인력 운용의 대대적인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종전에는 속기사와 편집 업무의 2단계 업무 분장이었다면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임장자, 원고 작성자, 조사, 전문번, 교열 등 여러 단계로 역할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장기간 단일 업무를 수행하는 회의록 발간 업무 관련 인력 운용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회의록은 신속성뿐만 아니라 정확성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회의 내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발언자 확인, 불분명

4차 산업혁명, 우리에게 기회인가 고난인가?

일본 참의원 연구

김민아 기자

- 들어가며

일본 참의원 본회의를 의사중개시스템을 통해서 보았을 때 회의장이 우리나라 본회의장보다 작은 느낌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참의원 의원은 242인으로 의원정수가 475명인 중의원은 물론이고 300명인 우리와 비교할 때도 인원수가 적다.

그리고 본회의장이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자랑하지만 전광판도 우리나라의 달리 몇 줄 정도만 표시될 정도로 규모가 작다. 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디지털 국회를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히 요원하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회의장 규모의 차이에서 출발한 호기심이 일본 의회와 우리나라 의회를 비교연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까지 미쳤다. 우리나라 의회와 비슷한 점을 많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점에 비추어 개혁에서 논의되는 양원제를 중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제국의회라고 하여 중의원과 귀족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중의원은 지금처럼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지만(그 당시에는 일정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있었다) 귀족원은 말 그대로 귀족들로 구성된, 특정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그러다가 패전 후에 일본은 미국 지배하의 점령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일본국헌법, 지금 현재의 평화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미국은 귀족제가 폐지되어 더 이상 귀족원이 필요 없다는데다가 영국처럼 특정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미국처럼 특정 지역인 주(州)의 이해를 대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단원제가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본은 양원제를 강하게 고집했다.

일본이 양원제를 내세운 근거는 다수 여당을 중심으로 하여 생길 수 있는 편파적인 국정 운영의 견제와 신중한 심의라는 것이었지만 이는 천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귀족원을 이어발는 참의원의 역할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양원 모두 선거로 선출한다는 선에서 타협하여 현재의 중의원과 참의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 양원제 운영의 의의

그렇다면 일본이 양원제를 주장했던 근거가 얼마만큼 정당한가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우선 편파적인 국정 운영 견제의 면을 본다면 그다지 성공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민당 정권이 장기집권체제로 돌입한 지 이미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이다(잠시 동안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로 귀결되었다). 중의원이 참의원이고 자민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의 결정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일본의 정치환경 속

심으로 더 자세히 연구해 보기로 했다.

-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

먼저 중의원이 있는데 왜 이런 작은 규모의 참의원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우리 국회의 경우 정기회 회기는 100일로 정해져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정기회 회기가 150일로 정해져 있다. 정해진 회기 안에 중의원에서의 똑같은 과정을 참의원에서도 고스란히 반복하는 데 있어서 낭비되는 요소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국회의 경우에는 여야가 서로 대립하는 경우에 회기 말까지 아슬아슬하게 끌고 가다가 극적으로 타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시회를 열어 서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중의원에서 야당(자연 전력을 쓰는 것은 주로 야당이 된다)이 회기 말까지 끌고 갔다가 극적으로 타협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참의원에서 통과시키려면 기한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닐까 싶다. 게다가 중의원과 참의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했을 경우에 중의원의 의결을 우선시하도록 일본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더더구나 참의원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 일본의 양원제 도입 배경

그래서 일본에서 양원제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양원제를 채택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에서 참의원이 중의원을 견제하는 데 얼마나 성공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법안 심의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얼마나 보장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규로 제출되는 중법(중의원 의원발의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는 비율은 34%로, 신규로 제출되어 성립된 전체 법안의 12.5%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신규 제출된 중법은 25.8%가 계속심의(폐회 중 심사)로, 37.8%는 폐기되어서 중법 전체의 약 3분의 2가 중의원에 제출된 뒤에 심의가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에 신규로 제출된 참법(참의원 의원발의 법안)은 15.5%밖에 성립되지 않으며, 이는 신규 제출되어 성립된 전체 법안의 2%에 해당되는 것이다. 신규 제출된 참법의 경우에는 16.8%가 계속심으로, 63.1%가 폐기되어 참법 전체의 5분의 4가 표결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의원을 보완하여 신중하게 심사한다는 참의원의 존재 의의는 그다지 발현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 참의원에 대한 일본 내의 시각과 시사점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는 참의원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 일본 내에서도 참의원을 중의원의 카본카피라고 부르며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이에 참의원은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된 자문기관인 참의원 문제간담회에서 현 상황을 정리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참의원은 중의원과 다른 독자적인 입장과 관점에서 국정 심의에 임하며 중의원을 억제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기대했지만 현재는 제2의 중의원으로 전락하여 그

독자성을 잃고 있다. 또한 참의원은 중의원 우월성의 원칙하에서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양원제의 존재 의의를 살리기 위해 진중하고 충실한 높은 수준의 심의를 기대했지만 현재 그 심의가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참의원에서도 정당화(政黨化)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해도 참의원은 중의원에서 각 정당의 대립투쟁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중의원에 대한 억제와 보완 기능을 발휘하는 데도 필요하다 할 것이나 현재는 참의원도 강한 정당 지배하에 있어서 그 독자성과 자주성을 방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의원은 '양식의 부'로서 양식 있고 이성 있는 국정 심의의 장이 될 것을 기대했지만 실재는 심의 지연, 강행 표결, 물리적 저항 등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참의원문제간담회가 진단한 현 상황이다.

참의원문제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참의원의 독자성과 자주성의 확보를 위한 방책으로서 참의원에서 당의구속의 완화, 입각 제한, 의안수정의 중시, 예비조사제도의 활용, 공청회나 참고인 제도의 활용, 위원회에서 자유토의 채용 등 과거의 경험에 입각하여 법 개정용 요하지 않는 개혁을 신속하게 실현해야 할 것을 제창했다. 여기서 당의구속은 의원 개인의 의사보다는 당이 결정한 내용에 따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완화해서 보다 의원 개인의 양식에 의한 판단에 위임하여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각 정당에서는 여차와 법안에 대한 수정을 한다면 중의원에서 하자고 하는 사고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수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불명예라고까지 생각하는 것 같다. 여기에 당의구속이 과도하게 중시되는 이유

가 있다.

또한 동시에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안의 수정이 야당의 권위에 관계된다고 생각하여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안을 지지하는 관료도 수정에 반대한다. 이렇게 된다면 강행 표결이나 물리적 충돌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법안에 대한 각 정당의 경직된 자세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으며, 이는 중·참의원을 불분하고 필요한 것지만 적어도 참의원에서만이라도 국민 여론을 배경으로 하여 여야의 일치로 타협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상원의 무용론이 제기되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영국에 비하면 일본에서는 상원(참의원)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높다. 참의원이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우리 국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하나된 열정

신 현 진



얼마 전 '하나된 열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화가 꺼졌다.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임에도 불구하고 개최식 전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남북한 단일팀 구성, 공동 입장이 성사되면서 평화올림픽의 이미지를 굳건히 했을 뿐 아니라 올림픽 기간 내 선수들이 보여 준 뜨거운 열정과 관람객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올림픽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무엇보다도 화려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볼거리로 넘쳐났던 개최식은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행동하는 평화(Peace in motion)'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3000여 명이 출연해 '조화'와 '융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

나는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속기학술회담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올림픽에 비해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매년 전국의 속기사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인 속기세미나 또한 올림픽 정신과 많은 것이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017년 25회 한글속기학술회담회는 경기도 청평 컨벤션리조트에서 열렸다.

입사하고 나서야 스태프로 처음 참석하게 된 세미나라서 모든 게 어색하고 실수 투성이었지만 함께 온 선배님들의 조언 아래 서툴러도 차근차근 많은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다.



컨벤션리조트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인원을 체크하고 일정보와 2017 속기계, 기념품 등을 배부하고 나니 벌써 세미나를 시작할 시간이 되어 있었다. 세미나는 별관에서 진행되었고

세미나 시작 전에 정성호 전 회장님과 안기철 이사장님의 속기세미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묻어나는 축하말씀이 있었다. 두 분 말씀 모두 그날 한자리에 모인 속기사들의 긍지를 고취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다음에는 '4차 산업혁명과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경호 교수님은 강의에서 그 중심에는 사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강의 자료에서 인용하자면 '사람을 배제하려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공성과 다양성을 회복하여 사람의 일을 수평하게 이동



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요즘 우리 속기사들 사이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음성인식 기술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불어닥칠 여러 가지 변화

의 수용들이 속에서 그 기류에 수동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바람직한 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권영진 의사국장님께서 알찬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 '국회의 회의 운영'이라는 다소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주제를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강의 자료 위주의 설명보다는 국장님께서 몸소 겪은 사례를 들면서 회의가 진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해프닝을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 입사한 지 반년 정도 되었던 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한 말씀이라도 더 새겨들으려고 집중했었다. 또한 입사한 후에 실무를 경험해 보면서 어렵듯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궁금했었던 것,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 그 개념부터 근거조항까지 알고 나니 업무

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학술세미나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재미없고 지루할 거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 세미나에 처음 참석한 나로서는 속기학술세미나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할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무궁무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사실 입사 전에는 자격증을 따고 취업 준비에 매달리느라 자기 계발에만 몰두했었는데, 전국의 속기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주제를 놓고 논의하고 함께 발전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세미나가 있어서 가슴 한 편이 든든했다.

다음 일정은 모두가 기다려 온 바비큐 시간이었다. 국회, 지방의회, 자막방송, 교육속기사, 예비 속기사, 부천대 스마트속기학과 학생까지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들 오랜만에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정말 즐겁게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고 끝이 시작된 행운권 추첨으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샌드 있는 진행과 함께 푸짐한 경품까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감사했던 나는 경품을 못 받아도 크게 아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

간 행운권 번호가 호명될 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즐거웠던 바비큐 시간이 끝나고 난 뒤, 우리는 그대로 잠들기가 너무 아쉬워서 몇 개의 숙소에서 삼삼오오 모여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회포를 풀기에는 너무 짧은 밤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튿날 통통 부은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자니 다시금 어색해지는 느낌이었지만 이내 이야기꽃을 피웠다. 우리는 속기세미나의 마지막 일정으로 아침고요수목원을 들르게 되었다. 나에게 좋은 추억만 있는 곳이라서 세미나에 오기 전부터 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봄꽃이 가득 핀 수목원은 역시나 아름다웠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나서는 좀 더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졌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숨은 주역,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를 꼽듯이 한글속기학술세미나 또한 뒤에서 묵묵히 일해 준 스태프들과 많은 이들의 응원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세미나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선배님들과 스태프들의 노고는 물론이고 속기계를 향한 속기인들의 애정에 큰 감동을 받았던 아쉽고도 짧은 1박 2일이었다.





새내기 인사 요행이 아닌 맘과 노력의 결과

요행이 아닌 맘과 노력의 결과

양 진 혁



대학교 3학년 기말고사를 마치고 겨울방학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다. 대학 전공을 행정학과로 정했고 목표였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다. 내 목표는 그냥 공무원이었고 어떤 공무원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겨울방학 시작과 동시에 다양한 공무원 직렬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일반행정, 세무, 교정, 교행, 사회복지 등등 다양한 직렬들이 있었지만 어느 하나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직렬은 없었다. '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알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며 알아보기를 며칠, 속기라는 직렬을 알게 되었다. 사실 알아보기 전까지 속기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알아볼수록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꽤 비싼 키보드 가격에 잠시 망설였지만 결정을 내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속기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시작됐다.

평소 쓰던 키보드가 아닌 새로운 키보드로 연습해 나가는 과정은 재밌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 가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하루하루 향상되는 실력을 통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금방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66 대한속기협회



새내기 인사 요행이 아닌 맘과 노력의 결과

종계도 합격자 발표 당일 내 수험번호가 합격자 명단에 들어 있었다. 정말 붙으라는 신의 계시인가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면접을 준비했다. 하지만 면접 이후 최종 합격자 명단에는 내 수험번호가 아닌 다른 수험번호들만이 적혀 있었다. 2차 시험 때까지만 해도 정말 운이 좋아서 최종 합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불합격하고 나서 보니 내가 너무 요행만 바랐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음으로는 1년 다시 수험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이제 나이도 있고, 친구들도 하나 둘 취업을 하기 시작했고 부모님이 빨리 취업을 하길 원하셔서 다시 마음을 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최종 면접까지 갔다 왔다는 경험이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잘 말씀을 드리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1년 동안 공부를 조금 한 날은 있어도 신 날은 하루도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 결과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내 수험번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합격해서 합격후기를 쓰는 날이 오게 되었다. 약 2년 동안의 수험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내 맘과 노력으로 성취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점 등등이었던 것 같다.

2017년 11월 6일 국회 직원으로서 첫발을 내딛었고, 2017년 12월 2일 국회의 정기목과의 일원이 되어 속기사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지금은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아직도 회의에 들어가 때마다 긴장되고 내

68 대한속기협회



들었다. 하지만 자신감으로 푹푹 뭉쳤던 나는 그저 우물 안 개구리였다. 집에서 야 긴장감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너무 편했지만 막상 시험장에 간 나는 긴장감으로 인해 밀릴 뻔하는 손을 주체하지 못하며 시험을 봐야만 했다. 결과는 당연히 불합격이었다. 앞으로 다양한 장소의 중심에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속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데 시험장에서조차 속기를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좌절감을 느꼈다.

그날 이후 많은 반성을 하며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고 실력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한 나는 자막방송 연수를 받았다. 연수 이후 자막방송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며 실력도 쌓고 나름대로 자신감도 기울 수 있었다. 그 결과 상반기 시험에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자격증 취득 이후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정례회 기간 중에 속기 업무를 하면서 국회속기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015년 10월 본격적으로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누구나 그렇듯 나 역시 1년만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하자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다. 7명으로 생각보다 많이 푹기도 했고, 운이 좋았는지 2016년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당시 국회 실기시험 커트라인이 95~96점 정도였는데 1급 자격증도 있고 자막방송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기시험도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2차 시험을 준비했다. 실기시험 당일 논설제 낭독이 흘러나오는데 첫 한글속기시험을 봤을 때처럼 긴장감으로 인해 손이 굳고 밀릴 뻔하기 시작했다.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남은 낭독 부분을 열심히 썼지만 합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운이



속기계 69

가 작성한 회의록이 하나의 책자가 되어 나오고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것에 놀라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속기사는 항상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항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많은 분야에 대해 공부도 하고 맞춤법, 띄어쓰기, 신조어 등등 챙겨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고 느꼈다. 앞으로 일할 날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공부하는 속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속기계 69





새내기 인사 **한결음, 한결음, 탄탄하게**

한결음, 한결음, 탄탄하게

정 채 이



- 국회속기사를 꿈꾸기까지

저는 이번에 국회속기직에 합격하게 된 정채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목표했던 국회에서 일하게 된 것이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속기를 시작하고 자격증을 따는 데까지는 남들보다 좀 오래 걸린 편이었습니다. 대학 생활과 속기 연습을 병행하는 것도 물론 힘들었지만 제일 큰 원인은 저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등 마는 등 시간만 보내다가 막상 취업할 나이가 닥치오니 문득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회가 아닌 일단 자격증을 목표로 잡고 속기 연습을 해 나간 결과, 시작한 지 거의 3년 정도 만에 뒤늦게 3급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뭔가 해내고 나니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졸업하기 한 학기 전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또는 뭔가를 목표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아직 속기로 진로를 완전히 정하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이왕 취득한 자격증을 한번 살

70 대한속기협회



새내기 인사 **한결음, 한결음, 탄탄하게**

2017년도에는 필기는 무조건 붙는다고 생각하고 실기시험을 더 탄탄히 하자는 생각으로 실기 연습의 비중도 올리며 공부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다음 시험까지의 1년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전 시험은 준비 기간도 짧았고 나이에 대한 압박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떨어져도 괜찮다는 자기합리화로 조급함을 별로 느끼지 않았는데 한 번 떨어지고 나니 여러 가지 요인들로 많은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집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와 실기를 병행했기 때문에 경쟁자로 인해 자극을 받거나 하는 환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약해져 시간이 흐르면 나태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취미활동을 만들어서 공부를 목표량까지 하면 취미활동을 하는 식으로 내 자신을 지지하지 않게끔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집에서 혼자 하는 공부의 단점을 많이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 목표한 2017년도 필기시험에서 작년 과락이었던 헌법 과목 덕분에 붙을 수 있었고 실기도 함께 병행한 덕분에 실기시험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의 경우는 수강하고 있던 온라인 학원에서 준 자료와 협회에서 제공한 모의면접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72 대한속기협회



려 보자는 생각으로 속기사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속기사가 있었지만 그중 국회속기사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TV로만 접했던 국회의사당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점과 평생 직장이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 국회속기사 준비 과정

국회속기사가 되려면 필기·실기·면접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저는 3급 자격증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기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필기에서 통과한다 한들 실기에서 떨어져 버리면 상실감이 더욱 클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필기시험 전까지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학교 수업, 공무원 필기시험 준비, 1급 자격증 연습을 한 학기 동안 병행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1급 자격증을 필기시험 전까지 취득하고 학교도 무사히 졸업했지만 필기시험은 헌법 과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결과이기도 했고 자격증 취득과 졸업이라는 다른 목표를 이룬 상태였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필기시험을 보고 나니 덕분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과 고쳐야 할 공부 습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롭게 공부 계획을 짜고 좀 더 전략적으로 필기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기계 71

- 앞으로의 각오

현재 의정기록과에 근무한 지 4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전과는 확 달라져 버린 저의 생활 때문인지 초반에는 적응하기 어려워 사소한 실수도 많이 하며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보면서 그로 인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겪어야 하겠지만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힘든 시간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속기계 73





새내기 인사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

최은혜



저는 2014년 웹 에이전시의 기획자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간의 적응기간을 거치고 업무가 대강 익숙해질 무렵 제가 느낀 건 일에서 오는 보람이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업무에 대한 회의, 권태, 미래에 대한 아득함 등이었습니다. 제가 하던 업무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할 수는 없는 일처럼 느껴졌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은 별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이 작업하던 선배들, 특히 디자이너나 개발자 등을 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 여러 직업들에 대해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담보되는 전문성이나 일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들이 직무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는 살면서 그런 자격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쏟은 노력과 시간이 남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만으로 하던 일을 단번에 그만두기란 쉽지 않았고 바쁜 생활에 떠밀려 지내던 중, 저는 우연히 한 국정조사특위 중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회의장 중앙에 앉은 이들이 제 눈길을 끌었고 그분들은 이따금씩 가



새내기 인사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것

정도의 여유 자금이 모아진 후 2016년 11월 말부터 독서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달리 필기시험이 전년에 비해 한 달가량 앞당겨졌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야 5개 과목을 다 보기에는 매우 촉박한 시간이라 느끼게 했습니다. 더구나 국회시험은 실기 또한 매우 중요했기에 수험서를 보고 있다면 실기 걱정과 불안함이, 키보드를 꺼내 들면 아직 봐야 할 수많은 수험서가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길지 않은 그 기간들은 불안과 초조함, 처음이라 곁을 수밖에 없던 여러 시행착오로 가득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니 그제야 공부하는 법을 조금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차 합격 결과에 대해 마음을 비우고 있던 상태에서 합격하고 나니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실기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실기도 쉽지는 않았지만 감을 찾는 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험날 짜가 가까워 올수록 어딘가 불안했고 실기까지 끝나고 왔을 때도 최종 합격에 대한 기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면접까지 가게 된 상황에 오니 그제야 진짜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졌을 때 내년을 준비할 동력이, 마음가짐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면접을 위해 국회에 세 번째로 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밤을 새고 온 탓에 정신은 없었지만 날씨도 맑았고 경내는 여전히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니 여기에 언제 다시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혼자 사랑제에 올라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집에서 나온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선생님을 따라 언덕을 올라오던 장면을 보며 국회에 다니는 그 어린이들



매라 앞을 지나다니곤 했습니다. 저분들은 누구냐는 질문에 누군가가 속기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 국회속기사를 검색해 보니 꽤 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고민 끝에 대학 시절 선생님과 동기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 놓았고 끈질기게 회사에 남으라고 하실 줄 알았던 선생님께서는 한번 도전해 보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이를 뒤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저는 단기간의 알마와 여행 등을 마치고 국회속기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여름 화상강의로 한글속기자격증 준비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예 낯선 방식의 운지법을 익히는 것이 꼭 새로운 악기를 배울 때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준비한 자격증 시험이었지만 그다지 힘든 줄 모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습 자체에서 오는 재미 때문이었습니다. 한정된 주제에 매몰되지 않고 활자면 일단 치고 보는 식으로 연습했고 그러다 보니 실중 잘 내는 제 성격에 속기는 꽤 잘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기야말로 '꾸준히 하면 된다'는 명제에 공감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2016년 국회에서 열렸던 필리버스터는 다음 목표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5개월째에 1급 시험을 치렀고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1급 취득 후에 속기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았지만 협회로 지원했던 재택 아르바이트 등은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고 급여 면에서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져서 다른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어느



속기계 75

을 부러워하던 것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곳으로 옮겼을 한다는 것이 문득 너무나 생경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정해진 날짜에만 시험을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것 자체가 시험이었고 매 순간 그 시험을 이겨냈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번 열매감과 무기력에 시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더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세상은 넓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방대한 이슈들이 매일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키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으면 문득 국정특위 중계를 처음 보던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고통 받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댈 때 지근거리에서 그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제 운 좋은 삶에 대한 부채감을 털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고 배워야 할 것들이 태산 같습니다만 좋은 주무님을 만나 즐겁게 회의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기록과에서 제 주어진 몫을 충분히 해내는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계 77



좌동우언(左動右言) 속기사의 기본기

고 경 효



국회는 매년 4월이면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찾아오는 봄꽃을 맞아 큰 축제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만나서 팝콘처럼 피어나는 봄꽃을 보러 오는 봄꽃축제 기간에 지금은 공모연수 중이신 고경효 과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홍보부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고경효 오면서 보니 봄꽃축제가 한창인데 나무들이 큰 그늘을 만들고 꽃들이 만개해서 아주 좋아요. 제가 국회를 79년 10월에 들어왔으니까 거의 40년을 국회로 출근하면서 해마다 봄꽃 구경 눈부시게 했으니 오는 것이 아쉽진 않았고 좋네요.

홍보부 39년을 여기 국회의사당에서만 계속 근무하신 거잖아요.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한 소회는 어떠세요?

고경효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일에 시달릴 때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세월이 가고 나니 정말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인터뷰까지 하게 되고 다시 한번 감사하지요.

우리 업무가 협업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업무잖아요. 제가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 속기라는 것이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고 요즘 또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항상 사회 현상의 최첨단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가 회의장이었고 회의록 만드는 일이라서 저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따라가면서 원고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퇴직을 앞두고 더 직장에 감사하고 있어요.

홍보부 과장님은 오랫동안 속기사로 일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생긴 버릇이 있으세요?

고경효 당연히 있지요. 선배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오래 속기 일을 하다 보니 일단 남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경청하는 습관이 생기고, 강연을 들을 때나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내용 파악해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어이없어 할 때도 있어요.

또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목소리의 느낌과 말과 모든 것의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손은 물론 무의식적으로 속기하고 있고…… 이것은 실무를 떠난 지 오래 되었어도 항상 남아 있는 버릇입니다.

홍보부 속기를 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건 있으세요?

고경효 제가 들어올 때는 인터넷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좋아했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의장에서 들리는 낯선 말은 항상 어려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척척 알고 말씀해 주시는 주무 선배님들의 존재가 대단했는데…… 원고의 완성은 항상 어려운 일이지요.

임사 몇 년 동안은 정상적인 회의라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음이 잘 안 써지고 소음과 고성 속에서는 상황에 맞는 말을 찾아 들으려고 노력하면서…… 원고

의 완성을 향한 어려움은 속기사가 신이 아니니까 항상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는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어려움이 달칠 때마다 굴복하지 않고 나름대로 슬기롭게 넘겼기 때문인 것 같아요.

홍보부 실무 하실 때 가장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있으세요?

고경효 완전 에피소드인데…… 기억나는 것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통과할 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강내 소란으로 끝나 버렸어요. 그런데 당시 야당 보좌진이 제 노트를 훔 들고 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시나리오가 있어서 속기사가 시나리오대로 해서 주면 그대로 회의록이 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렇게 될까 봐 내 노트를 가져가서 읽어 볼 요량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속기문자를 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과 다른 속기사한테 들고 가서 읽으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나는 노트를 훔치고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지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때 의사국장님이 주영진 전 예산처장님이셨는데 당시 김창진 계장님이 오셔서 국장님이 속기사는 들은 대로 써서 내라고 했다고 그러셨어요.

노트가 돌아와서 보니 몇 줄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개회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몇 줄 쓰고 장내 소란, 청취 불능도 쓰고 그러고 했어요. 그것으로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보통은 여야가 싸울 때는 현장에 있던 속기사가 시발서도 쓰고 복잡했는데 저는 들은 대로 써서 내고 뒷분들 앞에서 정리를 한 거지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의 상황과 달랐고…… 여야 대치 속에서 어려

운 상황이었지만 속기사는 들은 대로 써서 내고 나머지는 뒷분들이 처리를 하신 것이지요. 제가 승진하고 여러 직책을 거치면서 항상 업무에 두고 업무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편람도 많이 변화했어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 상황을 직원들이 어떻게 표기해야 할지가 항상 고민거리인데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편람도 시대에 맞춰서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 일도 변화 변화의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기억에 남네요.

홍보부 관리자로서 일을 하실 때 기억에 남는 일은 있으세요?

고경효 제가 담당은 아니었지만 계장일 때 미디어업 파동으로 회의록이 현재까지 간 상황이 벌어진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당시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속기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회의장에서 일어난 일을 들은 대로, 혼란스럽지만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감이 없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지요. 제가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이후 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업무를 챙겨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관리자로서 훌륭한 인재들을 신입 직원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일이었어요. 미래를 짊어질 신입 직원들을 생각하면 저는 의정 기록과 그렇게 얽힌 것만은 아니고 희망적이라는 생각이예요. 실력 있는 직원들이 들어온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을 신뢰해요. 현장에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오는 속기사의 능력을 존중하고 또 신입 직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훌륭한 속기사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되고 계속 충원되는 현실은 나쁘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홍보부 과장님은 속기목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경효 회의록은 당시의 사회를 알 수 있어요. 옛날에 원조물자 받아 가지고 근대 식량으로 들어가는데 그 짧에 모래를 섞은 사건이 터져서 그런 게 국회에서 이슈가 된 회의록을 읽은 기억이 나요.

우리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국정조사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30년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왜 구속됐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의록을 보게 되지요. 국회 회의록은 비교적 충실하게 다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정원일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회 전반적인 것을 충실히 알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한 현대 실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온 후에 한 시대를 반영하는 사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서 회의록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은 현재 제반 여건이 좋지 않다고 느껴졌지만 긴 안목으로는 자부심을 가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부 그러면 진정한 속기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고경효 무엇보다 속기사도 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큰 틀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바쁘게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임하다 보면 소홀히 하기 쉽지만 국회 공무원으로서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우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테두리의 협업도 필요하고 또 속기하는 자체가 협업과 독립적인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인지하면서 업무에 임해야 됩니다.



속기해서 회의록으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서비스되는 과정이 어떤 협업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까지 알고 업무를 하면 하고 있는 일의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믿어요.

속기사의 개인적인 자질을 생각한다면 끈질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르면 적당히가 아니라 말한 분의 정확한 의도를 원고에 반영하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자질이라고 봐요. 지금은 인터넷 검색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있지만 기본 사실을 모른 채 발음에만 의지해서 정확한 원고를 해내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오청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원고를 하는 태도도 또 무척 중요한 자질이예요.

또 하나는 열린 마음과 개방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기사는 아는 만큼 들린다는 말이 있어요. 의원님들의 말투나 전문적인 지식을 다 이해하고 속기하면 최상이겠지만 속기사가 또 만들면은 아니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주무님이 아주 중요했지요. 모자란 부부의 능력을 선배 주무님이 해결해 주는 아주 선순환적인 구조였지만 사회 구조가 바뀌고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조금 다르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것을 공청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열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와 아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는 지식하고 옆 동료의 아는 지식을 서로 공유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예요.

한 회의장을 들어가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을 옆의 동료도 모를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그래서 분위기가 중요해요. 말할 수 있는 분위기. 내가 '이게 아닐까요?' 하고 말했을 때 '그렇까?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같이 찾고 공유할 수

있는 동료들 간의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평소 '공청의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청의 힘이 사무실의 다른 요소도 좋은 쪽으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원고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홍보부 마지막으로 신입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고경효 저는 저희 직원들의 자질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들어와서 업무에서 차이가 날 때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를 대하는 자세? 자질은 다 훌륭하지만 처음 낯선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의 자세의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점점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속기 공무원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고 나오면서 그 회의장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비록 모르는 말은 몇 개 들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속기사로써 일에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지요.

업무 외적으로는 저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에게 국회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생활하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조직과 개인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은 매 순간 생기지만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넘어가는 순간이 많을수록 훌륭한 직업인, 생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는 저희 직원들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과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물러갑니다.

이상으로 항상 에너지 넘치게 생활하셨던 고경효 과장님의 인터뷰였습니다. 과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경기도의회

박정욱 속기사



어떤 계기로 속기사가 되었나요?

막연하게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버지도 공무원 출신이시고 동생도 저보다 먼저 공무원이 되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흥미를 가졌던 것 같아요. 공무원 중에서도 저의 능력이나 적성과 더 잘 맞는 공무원이 무엇일까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속기 공무원이었습니다. 군 행정병 출신에 컴퓨터 자격증도 많았고 제 이런 능력들이 잘 결합되면 제일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곳이 속기였습니다(실제로는 제가 생각한 능력과 자신감이 속기 실무와 일치하지는 않았습디만). 컴퓨터 타자 속도가 빠르니 속기하는 속도도 빠를 것이고 군에서 부대일지 및 경제위원회 등을 해 봤던 기억도 있으니 이것이 일종의 속기록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속기직과 딱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한 무모한(?) 자신감이 저를 속기의 길로 인도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면 그 무모함을 칭찬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속기사에서 지금까지 쌓아 온 경력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속기 1급 자격증 취득 후 영등포CAS속기학원에서 초급반, 중급반 강사를 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녹취 의뢰나 사무소 일을 도운 적도 있었는데 경력

타는 분들이라면 둘 다 병행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시고 그렇지 못할 것 같다고 자기관단하신 분들이라면 속기자격증 취득을 먼저 한 후에 필기시험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자격증도 취득하셨고 속기 실력도 나름 자신감이 생기고 필기시험 준비도 궤도에 오르셨다면 의회, 녹취, 학원강사 등 다양한 경험도 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면접 때 실무경험은 큰 자산이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노력인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노력하시다 보면 정말 따라 주지 않던 운도 따라 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의회 속기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거나 경기도의회의 회의록들을 작성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일을 합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경기도의 역사를 기록한다고 생각해도 맞는 말이고요. 면접 당시에 면접관분들이 좋게 봐 주셨던 답변이었네요.

각종 경기도의 현안들을 경기도의회의 각 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부터 교육위원회까지 총 11개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임시회 및 경제회 회의를 거쳐 의논하게 되는데 그 회의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주 업무인 것입니다. 각 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리는 회의 내용을 속기해 와서 사무실에서 서식에 맞게 고치고 오려나 오역이 있는 경우 수정을 해서 전자회의록시스템에 등재를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듯이 경기도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출장을 나가서 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

사항이라고 하긴 부끄럽고요. 아무래도 감사 일을 하면서 공무원시험 공부도 하고 속기 실력도 유지해야 되다 보니 다양한 경력은 없습니다.

많은 직업 중에 의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온 좋게 공고가 난 곳이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의 의회였습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경기도의회에 호기심도 생겼고 공무원이 꼭 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의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의 관문이 결코 쉽지 않기에 의회에 들어만 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한 점도 있고요. 지금은 의회에 들어온 것에 100% 만족하며 일하고 있네요.

의회 속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최소 자격요건인 3급 속기자격증 이상을 취득하셔야 하고 공무원시험 필기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둘 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학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주경야독 하시면서 준비하신다면 생각보다 빨리 목표에 도달할 수도 있겠지요.

가끔 질문 받았던 제 속기자격증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무원필기시험 준비도 병행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대단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하나씩 이뤄 가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역시 속기자격증 취득을 먼저 하고 난 뒤 필기시험 준비를 했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둘 다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준비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생기니까 병행이 벅차서 오히려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의지가 불

고 그 감사기록을 하게 됩니다. 또 각종 인사청문회라든가 도민들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한 중요 회의의 경우 속기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역시 저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등재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의회 속기사의 정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속기하는 내용이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관련된 얘기들이라 관심도 많이 가게 되고 제가 기록한 내용이 실제 경기도의 정책으로, 혹은 경기도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보다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2층버스 정책부터 아파트 재개발 정책이나 환경 문제, 택시정책, 육아보육 정책 등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과 예산을 제 눈으로 보고 있으니 속기를 하다 보면 재밌을 때도 있어요.

단점이라면 바쁜 시기에는 참 바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예산심의가 모두 포함된 11월, 12월 회기에는 주말 없이 일하기도 하고요. 저 시기가 되면 선배님들도 체력관리에 들어가거든요. 나쁘지만 한 건 아닙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 일한 게 나중에 돈으로 보상되니까요. 저희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요. 힘들어도 보람 있고 돈도 버니 기분 좋게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속기사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국회를 제외한 지방의회 중에서 경기도의회가 가장 큰 의회이고 그러다 보니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사무실에 23명의 인원이 근무 중이고요. 올해 또 신규 직원이 한 분 더 들어옵니다. 지방의회 중에서는 최초로 속기직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팀장님이 계시고 그 밑으로 6급, 7급, 8급, 9급 선후배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있으신가요?

제가 걸으려는 의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긴장도 많이 하고 엄청 쫄습니다. 시험 전날마다 참 그렇게 떨었는데요. 속기자격증 1급 시험 치러 가는 전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해서 그렇게도 미리 준비에 준비를 다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서 긴장할 걸 대비해서 준비했던 수면유도제를 한 알 먹었습니다. 잠이 안 오더군요. 또 12시가 돼서 다시 한 알을 먹었죠. 새벽 1시가 돼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결국 약사님이 말씀하신 최대 수량 세 알을 마저 한 알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죠. 밤을 새고 시험을 보러 갔었네요. 아속하게도 수면유도제의 효과는 아침이 되어서야 발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몽롱하고 피곤해서 정말 어떻게 시험을 지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 1급 시험을 치르고 완전히 정신줄을 놔 버려서 2급 시험을 엉망으로 봤던 것 같아요. 결과는 1급 합격, 2급 불합격이었네요.

저항계라도 될 수 있었던 건 끊임없는 노력이었던 것 같고요. 1급을 떨어졌다면 아찔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뒤로도 참 많이도 떨어졌어요. 의회 속기직 최종합격 전 면접에서는 수백 번을 외웠던 자기소개서부터 막혀서 정말 울고 싶기도 했어요.

혹시 정말 많이 버시고 시험 때만 되면 두려워하시는 많은 수험생분들, 저 같은 사람도 합격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으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 정말 많이 떠는 새가슴인데 제가 그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했으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뉴스의 생명은 치열한 속도

김수정 속기사



국회의사당 안에는 정론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슈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언론사들이 상주하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그날의 이슈에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신문사에도 속기사가 있습니다. 신문사에 근무하는 속기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중앙일보 김수정 속기사를 만나 보았습니다.

홍보부 안녕하세요? 같은 국회에 근무하는데 처음 뵈네요. 반갑습니다.

신문사 속기사는 처음 만나 뵈게 돼서 생소한데 어떤 경로로 중앙일보에서 근무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수정 저는 '사람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공고를 봤어요. 보통 속기는 그런 구직 사이트에 안 나옵니다.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협회에서 추천을 한다거나 문자가 오는데 그날 진짜 어떻게 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은 게 제가 집이었으면 핸드폰을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격증은 있는데 일도 없고 막막한 상태에서 자막방송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교육 받으러 전철을 타고 가면

는 말이 맞긴 한가 봐요.

속기사를 준비하는 예비 속기인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같이 속기직을 준비했던 사람들이랑 지금도 모임을 갖는데 거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사람들은 국회, 의회, 법원, 자막방송 어디든 들어가서 다 자기 몫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아르바이트로 학원강사도 하며 내가 걷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의문도 갖고 좌절도 하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제 좌우명이 "지금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고민하지 말고 선택을 했다면 이 길을 옳은 길로 만들어라."입니다. 이미 선택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서서 꼭 취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파이팅!

서 '다른 일이라도 한번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사람인에 들어가서 '속기'를 찾는데 모집공고가 몇 분 전에 올라온 거예요.

중앙일보 속기사이고 국회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 최종 목표는 국회인데 국회라고 하니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해서 봤는데 마감일이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찬물, 더운물 가릴 때가 아니니까 교육 끝나고 집에 가지마자 밥도 안 먹고 자기소개서 쓰고 모든 것을 다 완료하고 이력서를 보냈어요. '설마 진짜 12시에 땀 하고 걸겠어?' 했는데 진짜 공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몇 명이 지원했는지 그래프가 있어요. 봤더니 꽤 많이 지원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칠십몇 명 지원했는데 그중에 다섯 명이 서류 합격해서 실기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시험 보는 분 중에 저번에 지원했다가 떨어지신 분이 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정됐다 했는데 결국 제가 붙은 거죠.

홍보부 의정기록과에서는 회의록을 만들지만 신문사에서는 매일매일 기사를 만드시니 더 바쁘게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일간지 속기사는 어떤 일을 하세요?

김수정 제가 하는 일은 일단 국회에서 상임위가 열리면 그중에서 제일 기삿거리가 되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임위 위당을 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난리가 났다 그러면 오늘 국방위가 열리겠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와요. 또 재천 화재가 났다 그러면 행안위 그런 식으로 저는 그중에서 제일 이슈거리가 되고 위당이 제일 중요한 것들을 봐요.

그리고 이번에 개인 관례해서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들과 중앙일보 단독 인터뷰가 잡혔는데 그런 데는 보통 신입 기자님들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서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빨리빨리 기사가 나가야 되니까 파일을 공용시스템에 바로 올려요.

그리고 정론관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나 대변인 브리핑도 속기를 해요. 보통 대변인 브리핑은 몇 분 뒤에 원고가 나와요. 그런데 현장에서 다른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긴급 브리핑이라고 해서 뒤늦게 원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사라는 게 늦게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신속, 정확 이런 게 되게 중요해서 오타가 남지않는 일단은 빠르고 신속한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런 것을 속기하면 기자님들이 제가 친 것을 보고 기사를 쓸 때 참고를 하는 거예요. 정치 기사를 보면 마오표 안에 말한 그대로 들어가는 워딩들 이런 건데 이런 건 정말 정확하게 쳐야 돼요.

처음에는 귀로 들리야 손으로 이어지는데 정치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매일매일 다른 말들이 나오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말이 어려워 힘들었는데 지금은 기자님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여기서 수정 써가 제일 많이 안다고. 하루 종일 들으니까 이제는 조금씩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눈에 보여요.

회의는 본회의가 제일 중요해요. 본회의는 스케치 위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본회의에 주요 쟁점이 올라갔는데 시골시골하다 그러면 그런 것을 캐치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회의에서 싸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먼저 보는 역할인 거예요.

기 때문에 제가 속기한 게 아예 Q&A로 해서 바로바로 기사로 올라갔어요. 힘들다면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홍보부 신문사 속기사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을 국회에서 근무하는 분들보다 더 피부로 와닿게 느껴졌네요.

김수정 신문은 워딩이 되게 중요해요. 실시간으로 나가잖아요. 또 신문에 디지털팀이 있어요. 지면이 아니라 본사 디지털팀에서도 제 것을 보고 기사를 쓰세요.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대통령 나간다 하실 때예요. 원래 보통 기자회견은 하기 전에 기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기자님들도 다 왜 기자회견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3시에 온다고 하니 기자님들도 다 "뭐지? 뭐지?" 하면서 궁금해하니까 저까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정론관에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진짜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속기사들은 누가 쳐다보거나 그러면 잘 안 쳐지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보러 가도 옆 사람 보지 말라고 주의 주잖아요. 그런데 기자님들이 속기라는 자체를 아예 모르시고 속기사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니까 치기 시작하는데 제 뒤에서 제가 치는 것을 보고 있고……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세요. 그런데다가 좋이 보고 하니가 말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소리를 제일 크게 해도 잘 안 들리서 일단은 '모르겠다. 그냥 치자.' 해서 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출마 포기 선언이었어요. 출마 포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앞

그리고 저는 힘들었다고 하면…… 솔직히 일은 안 힘들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리고 제가 속기를 해서 올렸는데 기자님들이 정말 제가 친 그대로 띄어쓰기조차도 안 고치고 똑같이 하면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기사는 보통 제가 먼저 워딩을 듣고 다음 날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서 "엄마, 나 오늘 이런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진짜 너무 화나더라."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면 엄마는 "뉴스에 아무리 찾아봐도 네가 얘기한 게 없는데?" 그래서 "내일 나오겠지."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나오면 정말 신기하고 뿌듯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었다는 것을 꼽으면 제가 2년 전에 입사했는데 그때 최순실 청문회로 신고식을 제대로 치렀어요. 그 해 국정감사부터 최순실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예정 시즌까지 끝난 12월인데 청문회가 꼭 잡혀 있고, 제가 9시에 출근하는데 청문회는 9시에 딱 시작을 하니까 진짜 출근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첫날 대기업 회장들이 참고인으로 왔는데 국회의원 발언시간이 8분인가 7분이 많아요. 한 의원 발언이 끝나면 "수정 씨, 바로 올려 줘!" 그래서 진짜 수정할 새도 없이 바로 올렸는데 또 다른 의원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워낙 국민적 관심도 높고 여론이 집중된 청문회여서 의원님들도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그 준비한 것을 7분 안에 다 얘기해야 되니까 말도 빨리 하세요.

그래서 한 의원 말이 끝나면 바로 올리고 그리고 또 바로 다른 것을 치고,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모든 보도 자체가 다 최순실 청문회였

에 있던 카메라 기자님들이 '헉' 하고 놀라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기자님들이 다 백 브리핑하러 가지고 저는 다 치고 수정하고 올릴까 했는데 역시나 바로 올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올려도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초고 올려 놓고 보이는 것만 수정하고 저장해 놔는데 정말 올리자마자 몇 초 사이에 중앙일보 타이틀로 제가 친 초고 그대로 반기문 기자회견 전문이라면서 올라간 거예요. 내 판에는 빠르게 오 수정을 했고 설마 수정한 것을 올렸겠지 했는데 하나도 안 한 게 올라간 거예요.

홍보부 오타보다는 빠른 게 더 중요하군요.

김수정 저를 믿고 올리신 거죠. 저는 속기사니까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글 중간중간에 알파벳 s가 들어갔었는데 그 s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워낙 하면 중앙일보가 그렇게 올리면 YTN이건 TV조선이건 중앙일보 출처로 해서 그대로 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옆에 기자님에게 살짝 "오타 있는데 괜찮을까요?" 그랬는데 "괜찮아, 괜찮아." 하셨지만 저는 하나도 안 괜찮은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올라가도 다음날 지면이나 이런 것은 수정하면서 다시 정확하게 올려요.

홍보부 중앙일보에 다른 속기사님은 없고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김수정 제가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인수인계 해 준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다 좋다. 일도 바쁠 때만 바쁘고 한가할 때는 내 시간 많아서 좋은데 속기사 혼자니까 외로운 게 힘들다".

기자님들은 점심도 취재거든요. 다 약속이 있으세요. 없을 때는 기자님들이랑 밥을 먹지만 보통 다 바쁘시니까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아요.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되겠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혼자 먹는 게 편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그게 힘들었어요.

망년회 때 부장님께서 기자님들 다 있는 자리에서 “여기서 기사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그러시면서 저 힘든 걸 다 알아주시니까 힘든 게 썩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님들은 제가 도움을 드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수고했다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다가도 뿌듯하고 보람 있어요. “기사에 수정 써 이름도 써야겠는데?” 이러면 기분 좋지요.

저는 여기 와서 얻어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여기 와서 애늬늬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드 관련된 얘기를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서 공방을 하면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나라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 와서 정치에도 관심이 많아졌어요.

홍보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김수정 국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을 하고 있으니 자투리 시간에 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앙일보 계약이 올해 5월까지 지라 그때까지 일하고 이제 국회 시험을 준비하려고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원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저도 하다 보니 속기가 적성에 맞고 잘하는 일이

라 준비하고 있어요. 중앙일보 와서 더 국회에 들어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나도 저 자리에 가서 하고 싶다’ 하고요.

홍보부 그러면 앞으로 별 일이 많겠네요. 바쁜 시간을 내서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반갑게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시는 김수정 속기사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017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과정

홍 보 부

I. 교육 개요

- 대상: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120인
- 기간: 2017. 5. 10.(수) ~ 5. 12.(금) [3일간]
- 장소: 국회 현정기념관 2층 대강당

II. 교육 일정

날짜 시간	5. 10.(수)	5. 11.(목)	5. 12.(금)
09:30 ~ 11:50	등록 및 입교식 (10:30) 특 강 -지방의회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정식 (원)대한속기협회 부회장	회의록 작성실무 I -외래어 표기사례와 방법-	지방의회 회의운영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원장
12:00 ~ 13:30	점 심		
13:30 ~ 15:20	한글 맞춤법 권미연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사	회의록 작성 실무 II -비공개 회의록 관련- 정미경 국회사무처 속기사무관	특 강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송진휘
15:40 ~ 17:30	국회 속기사와의 대화 정순화 국회사무처 서기관	회의록 작성 실무 III -의회 용어에 대한 이해- 김영중 국회사무처 속기사무관	수 료 식 (15:30~)

1. 지방의회 교육 1일 차(5월 10일)

지방의회 교육 1일 차에는 등록 및 입교식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이경식 대한속기협회 부회장의 특강이 있었고, 오후에는 권미영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사의 '한글 맞춤법' 강의와 정순화 국회사무처 서기관과의 '국회 속기사와의 대화' 시간이 있었다.

2. 지방의회 교육 2일 차(5월 11일)

지방의회 교육 2일 차에는 회의록 작성 실무에 관한 강의라는 큰 틀에서 세부 주제별로 강의를 이루어졌다. 오전에는 최윤정 국회사무처 속기사무관의 '외래어 표기 사례와 방법' 강의를 있었고, 오후에는 정미경 국회사무처 속기사무관의 '비공개 회의록' 강의와 김영중 국회사무처 속기사무관의 '의회 용어에 대한 이해' 강의를 있었다.

3. 지방의회 교육 3일 차(5월 12일)

지방의회 교육 3일 차에는 홍원표 한국지방의정연구원 원장의 '지방의회 회의 운영' 강의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송진휘 강사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특강이 있었고 이후에 수료식을 끝으로 본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III. 지방의회 속기사와의 짧은 인터뷰

지방의회 실무교육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 점심식사 시간 뒤 막간을 이용해 지방의회 속기사와의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계속되는 거절과 도전의 반복 끝에 현재 경산시의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권도은 주무관님과 어렵게 몇 마디 나눌 수 있었다.



권도은 주무관님은 이번 교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과정으로 '한글 맞춤법' 교육을 들었는데 실무에서 헛갈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일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쉬웠던 점은 지방의회 실무교육에 2015년에도 참가하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 과정이 비슷한 것 같아 좀 더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권의의 말씀을 하셨다.

인터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도 시종일관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사진 촬영에까지 임해 주신 권도은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02 대한속기협회

속기계 103

제51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는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18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정기총회는 이 동준 총무재정회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및 성원보고가 있었고, 제25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입상자는 금상 김명진 회원, 은상 김천용 회원, 동상 김재일 회원으로 시상은 이경식 지도위원님이 해주셨다.



다음으로 정성호 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국회의원 겸직 불가 규정에 따라 정성호 회장이 사임하여 이경식 지도위원이 대신하여 인사가 있은 후 회장의 공석으로 안기철 이사장이 의장단에 등단해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후 회의는 안기철 이사장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먼저 최무보고를 이의 없이 접수하고 통과시킨 다음 부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17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안기철 이사장으로 부터 결산서 설명을 들은 후 김점동 감사의 감사보고를 듣고 이에 대해 전 회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이



사장의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이에 대해 전 회원 이의 없이 찬성함에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세 번째 부의안건인 임원 선임의 건은 국회의원 겸직 기준 강화로 인한 정성호 회장의 사임으로 새로운 회장에 현 협회 부회장이인 이주성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이상 3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후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1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104 대한속기협회

속기계 105



편집후기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봄이 더 반가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함께 녹여낸 제54호 속기계가 우리 속기인들의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3년여 홍보부원으로 활동하다 예쁜 아가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다운 씨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층 더 강력해진 팀워크를 보여준 홍보부장, 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규진

제 작은아이는 올해 4살입니다. 예쁜 것을 좋아해서 아침마다 사촌언니가 물려준 아직은 커다란 꽃무늬만 요란한 신발을 신겠다며 바쁜 출근길에 실랑이를 합니다. 하나쯤 사줘도 될 텐데 편한 운동화가 있으니 자꾸만 자꾸만 사는 것을 미루는 게으른 엄마를 둔 아이는 아침이면 눈물바람을 하곤 합니다.

54호 속기계는 아이 발에 꼭 맞는 예쁜 꽃신을 신겨 주듯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사님을 비롯한 홍보부 기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 기자영

올해도 무사히 속기계가 나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내년 일은 내년에 생각할래요.... 일단은 지금을 즐겨야지!! 호호^^

- 김진주

올해는 출산을 증가에 이바지하느라 홍보부 활동에 거의 참여를 못 했네요. 그런 와중에도 올해 속기계가 알찬 내용으로 꾸며지는 걸 보니 더 죄송하고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분발해서 한층 이상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박우찬

처음에 홍보부 제안을 받고 "저 글 잘 못 쓰는데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점점 발전하겠지라는 바람으로 두 번째 편집 후기를 적어 봅니다.

첫 번째 속기계에서도 느꼈지만 이 한 권이 나오기까지 정말 여러 분들의 노고와 많은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완성된 54호 속기계를 보니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속기계 편집후기를 적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부 파이팅!

- 김민아

이번 속기계는 기자로서의 저의 첫 데뷔 무대였습니다. 글재주가 워낙 없기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결과물이 나오기는 했네요^^; 나를 개인이라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제로 기사를 써 왔는데 부족한 제 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생각할 시간을 가지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알찬 속기계를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지요.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세요 :)

- 손아영



투고를 바랍니다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장구 역할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대한속기협회 홍보부
02)788-3083, 3183

홈페이지 www.steno.or.kr

이메일 mars8018@assembly.go.kr

내용 표지 그림·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비 납부 안내

회비	비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비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내실 곳

회비	비	농협 301-0160-1418-81 대한속기협회
협회발전기금	비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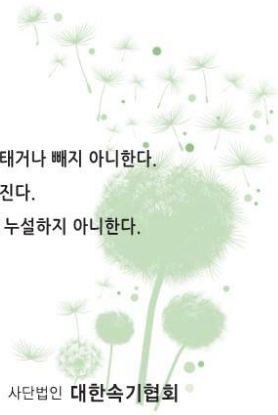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제54호 속기계

발행 2018년 5월

발행인 이주성

편집인 이규진

기자 김자경, 손아영, 김진주, 박우찬, 김민아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디자인·인쇄 동국상사 (02)362-3851

전화 02)788-2371~6

팩스 02)788-3386, 338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홈페이지 <http://www.steno.or.kr>

비매물

